

했다 하면 '인생캐'... '이태원 클라쓰' 어떨까



JTBC 새드라마 내일 첫 방송
불의와 타협없는 '직진 청년'

배우 박서준이 매력적인 캐릭터로 안방극장을 찾는다.

박서준은 오는 31일 처음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직진 청년 박새로이 역을 맡았다. 출연 작품마다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인생캐 메이커'라는 수식어를 얻은 박서준이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박서준이 연기하는 박새로이는 우직하게 소신을 지키는 강단 있는 인물이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간 첫날 '장가'의 후계자 장근원(안보현 분)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장근원에게 맞서는 해사이다 캐릭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망설이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그의 대담한 태도를 보여 준다.

이처럼 박서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소신남 박새로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두 번째로 첫사랑 오수아(권나라 분)를 향한 직진남 매력이다.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난 오수아에게 반한 박새로이는 서툴지만 거침없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인물. 한 사람을 향한 박새로이의 직진 본능은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렘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또 최근 공개된 '이태원 클라쓰' 예고편과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엿볼 수 있듯 박새로이는 장가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대한 야망을 품은 캐릭터이다. 요식업계 몬스터라 불리는 장가와 짝진 악연으로 얽히게 된 박새로이는 이태원에 자신의 가게 '단밤'을 차리며 통쾌한 반격을 꿈꾸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정하고 소신을 지키며 직진하는 박새로이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 박서준이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박새로이 캐릭터를 만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지효 · 김무열 중
누가 '침입자'인가

영화 '침입자', 오는 3월 개봉

영화 '침입자' (감독 손원평)가 오는 3월 개봉한다.

(주)에스메이커무비웍스는 29일 '침입자'의 3월 개봉 소식을 알리며 송지효, 김무열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침입자'는 실종됐던 동생 '유진'이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 서진이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29일 오전 10시 CGV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공개된 '침입자'의 1차 포스터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송지효 김무열의 강렬한 표정을 담았다. 실종된지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은밀하게 가족 안으로 파고드는 유진 역의 송지효, 그리고 돌아온 동생과 이로 인한 집안의 변화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서진을 연기한 김무열이 교차되듯 한 쌍을 이루는 포스터는 가족이라 불리지만 가장 낯선 존재로 만난 두 인물의 긴장감을 예고한다.

여기에 '사라진 동생이 돌아오'의 심의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카피는 영화의 제목과 맞물려 유진과 서진 중에서 누가 진짜 침입자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한편 '침입자'는 전 세계 12개국 수출, 국내 25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소설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의 오리지널 각본, 장편 연출 데뷔작이다. 오는 3월 개봉 예정이다.



김형준 허경환 김구라 전진(왼쪽부터)

김구라 · 허경환 · 전진 · 태사자 김형준
예능 '지구방위대' 론칭
방위 및 사회복지무요원 출신

김구라 허경환 전진 태사자의 김형준이 '지구방위대'로 뭉친다.

29일 뉴스1 취재 결과, MBN은 신규 예능 프로그램 '지구방위대'를 론칭한다.

'지구방위대'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방위'가 주요 키워드다. 방위 및 사회복지무요원 출신 셀러브리티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지키는 콘셉트로, 사회공헌과 공익실현이라는 기획 의도 아래 구성됐다.

막방, 관찰 예능의 반복에 따른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위 및 사회복지무요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출연자들이 신선한 콘셉트 아래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구라를 중심으로 방송인 허경환 신화 전진, 태사자 김형준 등이 고정 멤버로 뭉쳤다. 이들 모두 현역병이 아닌 방위 및 사회복지무요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각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선보일 케미스트리에도 벌써부터 궁금증이 쏠린다. 그중 태사자 김형준은 지난해 JTBC '슈가맨'에서 태사자 완전체로 뭉친 후 큰 주목을 받아 이번 고정 출연으로도 이어졌다. 복귀 후 첫 고정 출연 예능인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진 캐스팅을 마무리 지은 '지구방위대'는 곧 촬영에 돌입하며, 오는 2월 처음 방송된다.

뉴스1

“내가 설 수 있는 땅” 양준일, 남다른 팬사랑 드러내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게스트 출연



가수 양준일이 팬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다.

29일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표준 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이하 '여성시대')에는 가수 양준일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지난해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3'로 활동을 재개한 후 첫 번째 라디오 출연인 만큼 이날 양준일의 출연은 많은 팬

들의 관심을 받았다. 양희은 서경석도 양준일에 대해 남다른 환영을 보냈고,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은 많은 팬들도 양준일을 환영했다.

양희은은 양준일에게 “(이러한 인기를 실감하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양준일은 “여기 와게신 분들이 밤을 썼다고 들었다”라며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그런 뒤 양준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리베카' 춤 일부를 선보이느라 하면 두 팔로 하트를 만들어 날리기도 했다. 그러

면서 양준일은 팬들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제가 설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했다.

근황에 대한 이야기도 풀이했다. 양준일은 다시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많은 것을 비우고, 채우면서 살아온 것 같다”라며 “90년대 활동할 때 나 자신이 앞서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한국과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때를 생각하면 김치가 빠진 김치찌개였던 것 같다”라며 “지금은 김치가 들어간 김치찌개가 된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취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에도 양준일은 진심 가득한 멘트를 이어갔다. “예전에는 어떤 청소년이었냐 라는 질문에 양준일은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며 “실면서 방향도 하고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걸었는데 아픈 시점에서 아픔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답했다.

음악을 한 계기로는 “고등학교 때 오순택이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었다”라며 “같이 작은 한국 교회에 다녔는데 저를 보고서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라. 그분이 부모님께 ‘준일이는 연예인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은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서 ‘선생님 뭐 판매하시는 거 있냐’고 하셨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양준일은 그런 오순택을 회상하며 “그분은 제가 뜬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지금 만나볼게 되면 대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양준일은 육아에 대한 얘기도 풀이했다. 그는 “제 아이에 대한 욕심이 하나 밖에 없다. 나를 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무슨 문제가 있든, 살면서 문제를 피해갈 순 없다. 어떤 일이 있든 나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말을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양준일은 “책이 곧 나온다”라며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고, 많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지방에도 내려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구독자 200만 돌파’ 펍수 “언제나 초심 잃지 않겠다” 소감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펍TV'의 채널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EBS는 29일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펍TV'가 개설 약 9개월 만에 2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에 펍수는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100만이 되었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00만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펍수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이언트 펍TV'의 이슬이나 PD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심 어린 콘텐츠로 보답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혼 고백’ 서동주, ‘스탠드업’
출연 소감 “심각하게 생각 말길”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KBS 2TV '스탠드업' 출연 소감을 밝혔다.

서동주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독감이 엄청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 링거까지 맞고 한 거라 엄청 걱정했다. 다행히 PD님들과 작가님들이 편지를 잘해주셔서 재미있게 나온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서동주는 “사실 저는 재미있어 보이는 일은 다 도전해보자, 이런 주의로 도전을 했는데 대본 쓰는 일부터 연습과 리허설까지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더라. 또 남들 앞에서 뻔뻔하게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배짱도 필요하다. 박나래님을 비롯한 출연진 모두 정말 존경스러운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동주는 “‘스탠드업’이라는 게 원래 헛소리도 많이 하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그런 코미디니까 심각하게 생각 말고 웃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개그는 개그일 뿐, 다유로 만들지 말자”고 전했다.

앞서 서동주는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스탠드업'을 통해 아픔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혼이야기까지 솔직담백한 내용으로 유쾌함은 물론, 푹한 언니의 정석을 보여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이혼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으로도 화제가 됐다. 그는 이혼 계급을 군대의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비유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해 남남 쉬인 말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혼 남자가 겪는 아픔이 크다.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동주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한국 방송을 비롯해 미국에서 변호사를 겸하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